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최첨단을 향해 비약하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최첨단을 향해 비약하는 국가과학원 생물
공학분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과학연구성과전시
관, 생물제품중간공정생산도입실, 계능연
구실, 식물조직배양실, 줄기세포연구실,
유전자전이식물연구실을 비롯한 분원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며
과학연구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여러 실마다에 그
존하게 갖추어진 각종 첨단설비들과 새
로 개발된 생물공학제품들을 보시고 분원
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최첨단을 돌파할
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
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자
랑찬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
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
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분원에서 첨단기술
에 의거한 실용성이 높은 식물조직배양
체계 등을 확립한것을 비롯하여 농산과
파수, 식료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
들의 비상한 창조정신과 애국열의를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국가과학원 생물
공학분원에서 세계적수준의 여러가지 생
물공학제품들을 만들어냈을뿐아니라 세계
를 뒀고 올라설수 있는 최첨단기술을 소
유한것은 이곳 일군들과 과학연구집단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
면서 과학연구성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내일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운데 있다
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과학기술
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
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

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생물공학분원의 과
학자, 기술자들과 같이 높은 당성, 혁명
성, 인민성을 지니고 우리 당의 최첨단들
과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간다면 나라의

모든 부문을 짧은 기간내에 최상의 수준
으로 끌어올리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
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이룩할수 있
다고 하시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빨리 비
약하려는 이들의 비상한 창조정신을 다시

금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분원의 연구집단이
내놓은 착상안들을 보시고 가치있는 문제
들을 제기한데 대해 치하하시면서 과학
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사이에 창조적협
조를 강화하여야 기발한 착상과 적극적인
발기, 대담한 실천으로 과학기술을 끊임
없이 발전시킬수 있으며 과학연구성과와
기술혁신을 생산에 제때에 받아들일수 있
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의 생물공학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
여서는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해주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
시면서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
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국
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은 나라의 과학기
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 중요한 위치
에 있다고 하시면서 분원앞에 나서는 강
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오늘 생물공학의
발전수준에 따라 중요하게 해당 나라의
과학기술수준과 세계적인 경쟁에서 차지
하는 지위가 평가되고있다고 하시면서 국
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 기술
자들이 최첨단돌파전을 더욱 힘있게 벌
려 위대한 조선로동당, 김일성조선운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는데 적극 이바
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
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11월20일공장과 룡악산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11월20일공장과 룡악산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11월20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먼저 공장책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전시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달려온 공장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공장은 나라의 믿음직한 건설기계생산기지로 전변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공장의 로동계급은 수많은 건설장비들을 생산보장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대대를 축성하며 특히 건설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자랑스런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이어 증산의 불길

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의 로동계급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순간순간을 애국의 열정으로 가슴끓이며 련일 기적을 창조하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드넓은 직장에 즐비하게 늘어선 현대적인 대형기계들을 보시고 11월20일공장과 같은 수많은 강위력한 기계공장들의 힘있는 뒤받침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빛나게 실현하고 나라의 경제력을 급속히 강화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의 증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에서 제작한 준철선들의 구조와 작용원리, 그 성능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능력이 큰 준철선

비들을 생산한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보통강준철에 필요한 준철선들을 제때에 만들어 보내줌으로써 보통강을 락원의 강으로 더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에서 8월31일인 민소비품으로 생산한 《서리꽃》빙수기를 보여주시고 그 질이 높는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해 아글라글 애쓰고있는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태양절전으로 더 많은 빙수기를 생산하여 평양시민들에게 맛좋고 시원한 빙수를 공급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11월20일공장은 건설과 도시경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현대적인 건설기계들을 더 많이, 더 질좋은 생산보장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지금 온 나라는 새로운 비약의 열풍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고 하시면서 우리 조국땅에 흘러가는 한 초한초는 그대로 혁신과 진보의 련속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장구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억척같이 다져온 우리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총발동되고 강위력한 주체공업의 든든한 안받침이 있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대문을 열기 위한 총진군의 나팔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며 모든 전선에서 조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룡악산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물려과정, 물세척공정, 물주입공정, 출하공정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상태, 생산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있는 아담하고 정갈한 작업장들과 자동화된 흐름식생산공정에서 힘없이 생산되어나오는 샘물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현대

적인 샘물공장을 훌륭히 꾸리고 운영을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에서 생산한 샘물을 친히 맛보시고 물맛이 좋다고 하시면서 과학자들과 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예로부터 물이 좋아 장수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여 그 이름도 원로리로 불리운 곳에서 수질이 좋고 물량이 풍부한 샘물원천을 찾아냈을뿐아니라 현대적인 샘물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가공된 샘물을 수도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도시민들의 먹는 물문제와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서 룡악산샘물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선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을 안고 사람들의 몸에 좋은 룡악산샘물을 대량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이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새해전투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평안북도안의 공장들을 현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새해전투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평안북도내 공장들을 현지도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먼저 압록강계기종합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가공공장, 소재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진같이 꾸려진 작업장마다에 준비하게 늘어선 CNC화된 현대적인 설비들과 줄지어 쏟아져나오는 제품들을 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훌륭히 실현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질 좋은 각종 계기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8월31일인민소비품 전람회장엔 전시된 여러가지 제품들을 보시고 공장에서 부산물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질 좋은 소비품들을 많이 만들고있는데 대해 매우 만족하시면서 인민에 대한 그들의 헌신적부무정신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이어 공장에서 특색있게 건설한 문화회관과 구내식당,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문화생활정형과 후방사업실태를 알아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담하고 정결한 문화후생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로동자들

의 생활상편의가 훌륭히 보장되고있는데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한 공장일군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압록강계기종합공장은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과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모범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압록강계기종합공장은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봉배아리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현대화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여러 시간에 걸쳐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작업장마다에 준비하게 늘어선 현대적인 생산설비들과 제품들을 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훌륭히 실현하여 50여종의 배어링을 개발하고 생산을 급격히 늘인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자랑스런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기술개조한 기계설비들과 높은 정밀도가 보장된 여러가지 제품들을 보아주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창

조적지혜와 협조를 강화하여 많은 과학기술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함으로써 생산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두뇌전, 기술전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에 빛내이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그들의 투쟁열의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비상한 애국의 일념을 안고 현대적인 CNC설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첨단과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성과를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과학기술을 틀어쥐는 사람만이 미래의 정복자로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최신기술도입과 기술혁신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는 생산설비와 공장의 현대화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밀고 나감으로써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자체의 원료와 자체의 역량으로 생산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쥔 경험에 토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에 뛰어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열에 서자 이것이 우리 당의 최첨단과사상이라고 하시면서 최첨단과사전의 선봉에서 내달리고있는 최첨단과기계종합공장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는 넓고 혁신적인 안목과 과학기술경쟁에서 남들을 압도하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최첨단과들의 포성으로 적들의 과학기술봉쇄를 짓몽개버리겠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봉배아리공장의 로동계급이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압록강일용품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출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CNC화된 생산설비들과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제품들을 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일용품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시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에서 사출기를 비롯한 생산설비들을 CNC화한 결과 용근 한계 직장에 차려놓을수 있는 설비들을 거저 얻어내고 수많은 로력예비를 찾아낸것은 하나의 혁명이라고 하시면서 최첨단과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담하고 정결하게 꾸려진 생산건물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그흔히 갖추어져있고 수리화, 원리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구내를 바

라보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의 조국애, 공장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압록강일용품공장에서 올해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해산신발공장의 생산정상화에 절실히 필요한 최신식갑피사출기를 훌륭히 만들어내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제때에 실천할줄 아는 공장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압록강일용품공장은 나라의 일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 4월까지 공장에서 점령해야 할 중요생산공정의 CNC화목표를 제시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압록강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앞으로도 생산과 최첨단과전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안북도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고 하시면서 이 거세찬 대진군으로 하여 올해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대관유리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실현한 대관유리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영접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다음 가공공장, 조립직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하나의 과학연구기관을 방불케 하는 정결한 작업장마다에 준비하게 늘어선 CNC화된 기계들과 여러가지 제품들을 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훌륭히 실현하여 유리제품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시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

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려온 공장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CNC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불과 몇해사이래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공장으로 전변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CNC화의 표본공장이 또 하나 늘어남에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깊이 간직한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CNC화의 요구에 맞게 생산체계를 개조함으로써 우리 식 CNC화의 우월성을 실천으로 증명한 선구자들과 하시면서 그들의 자랑스런 위훈을 다시금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

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더 높이고, 더 빨리 비약하기 위해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과학기술고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이야말로 무한한 물질적부를 낳게 하는 원천이며 우리 조국을 하루 빨리 불패의 강국으로, 번영하는 참다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는 근본열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찬란한 조국의 태일을 위하여 분초를 다투며 증산의 불꽃을 날리는 처녀선반공 박영희를 비롯한 로동자들을 친히 만나시어 사업과 생활을 료해하시며 그들의 로력투쟁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8월31일인민소비품들을 보시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만든 제

품들의 질이 높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을 쓰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어 문화회관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관유리공장은 강성대국건설사업실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과 생산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는 CNC화를 훌륭히 실현한 성과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과학기술고지를 향해 계속 줄기차게 돌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기간에 점령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지도를 마치신 후 문화회관에서 공장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기동에술선동대원들이 높은 전투성과 호소성으로 생산자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불리일키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정열적인 예술선동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기술개건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기술개건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42년전 1월 18일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공장터전을 잡아주시신 뜻깊은 날에 어버이장군님을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영광을 지닌 공장의 로동계급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개건된 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성능높은

CNC기계들로 장비된 생산공정들과 새로 만든 기계제품들을 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최신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여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높은 기술을 요하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낸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쟁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능력이 큰 최신식기계제품들을 생산해내고있는데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에서 만든

일용필수품들의 질도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지금 기계공장을 비롯한 모든 기업소들에서 인민생활향상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어 공장에서 새로 꾸린 로동자식당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문화생활정형과 후방사업실태를 알아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담하고 깨끗한 식당, 주방, 화장고, 가공실을 보시고 공장에서 로동자들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후방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 이악하게 노력함으로써 몇해사이래 놀라운 전변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은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기계제품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새형의 능률 높은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가까운 기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현대적인 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

킴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승리의 대문이 눈앞에 펼쳐지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혁명의 총진군에 련속적인 박차를 가하여 남들이 걸어온 단계를 단숨에 뛰어넘어 세계에 솟구쳐오르려는 천만군민의 투쟁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함으로써 우리 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시 새로운 10년대로!

리 송 일

그 세월은 정녕 갔던가
통일의 열풍 휘몰아치던 6.15시대
그 환희를 불러 찾으며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가 왔다

이 년대의 출발선에서
겨레여, 생각해보자
반세기나마 쌓였던 불신도
순간에 6.15로 지워버린 우리 민족이
죽어
무엇때문에
통일의 기쁨을
대결의 아픔으로 바꾼단말이나

웃음 넘치던 상봉의 그 길이
눈물로 다시 젖어들 때
우리 뼈저리게 새겨안지 않았더라
6.15가 추켜든 우리 민족끼리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것이 통일의 생명선임을

지키면 오, 지키면

시 가자, 화해와 단합의 길로

리 철 준

만나면 정이 통하고
불러보면 목에는 남녘의 동포여
아픈 세월에 종지부를 찍듯
이 땅에 새해가 왔다
희망찬 태양이 우리를 부른다

한강도에서 대대로 살아온
우리는 하나의 민족
더는 세계의 먼지에서 싸울수 없다
가자, 화해와 단합의 태양로

돌이켜보라 홀려간 3년세월
불신과 대결로
우리가 얻은것 무엇이더냐
포란이 오고가던 날과 달들에
우리가 찾은 교훈은 그 무엇이더냐

꿈같이 열렸던 하늘길에

통일과 번영이요
짓밟혀 잃으면
분렬과 대결이거늘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더 높이
들자
겨울의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어도
희망의 봄빛은 반드시 비쳐오듯이
오늘도 불라는 6.15의 그 정신
겨레여, 새로운 10년대에 꽃피우자

이 희망의 년대에
너와 나 백두산정에 다시 올라
어깨걸고 통일해맞이 가자
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보자

오, 가슴벅차게 밝아온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는
민족분열의 비극에 종지부를 찍을
희망의 년대이다
7천만이 하나로 강성번영할
통일과 번영의 년대이다

시 통일의 길은 열리리라

박 철

전쟁의 불구름이 덮이고
기쁨에 겨워 오가던 땅길이 막혀
눈물로 가슴적시던 아픔이여

이제는 다 물어두자 지나간 과거를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너와 나 하나같이 떨쳐나
대결의 차디찬 얼음장울
저 울려간 세월처럼 떠밀어내자

통일을 위해서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태양이 더 귀중해
주의주장보다 먼저
정결과 신앙보다 먼저
화해와 단합의 오늘을 생각하자

오, 화해의 손을 억세게 잡고

단합의 마음 뜨겁게 불태워
하루빨리 대결을 끝장내자

시 새해의 푸른 하늘에

김 태 룡

바라는 소원 앞날의 희망
푸르른 저 하늘에 비졌는가
새해의 이 아침
비둘기 날으는 하늘에
노래의 나래를 펼친다

창창한 저 하늘아래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행복한 삶의 향기 만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속에
남녘의 형제들이 어리여온다

물어보자 남녘의 겨레여
우리 언제까지
남남처럼 살아갈소냐
그대 그 언제까지
불신과 대결의 총구를 마주할소냐

안된다 오, 안된다

내 나라 삼천리에 통일이 휘날려
가자!

이 새해에도 겨레의 운명앞에
전쟁의 불구름이 떠돈다면
그 수적 그 최악
력사가 용납하지 않으리라
민족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괴를 나눈 하나의 민족
불신하고 싸울 리유가 무엇이냐
마음을 열고 화해의 가슴 맞대자
비둘기가 환희롭게 나는 하늘
삼천리강도에 푸르게 펼치자

오, 새해의 푸르른 하늘에
이 마음 노래되어 울려 퍼진다
남녘의 겨레여
어서빨리 마음의 문 활짝 열고
화해와 단합의 두손 굳게 맞잡고
이 땅우에 통일강성대국
이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시 통일의 길은 열리리라

박 철

갈라져 우는 이 땅이
한살 아픈 나이를 더 새기는
새해의 이 아침
그리운 남녘동포들이여
우리의 소원 무엇이고
그대들의 소원 무엇이더냐

한가닥 대화마져 끊기었던
지난해처럼 지난 몇년처럼
더는 그렇게 살수 없고
더는 그렇게 싸울수 없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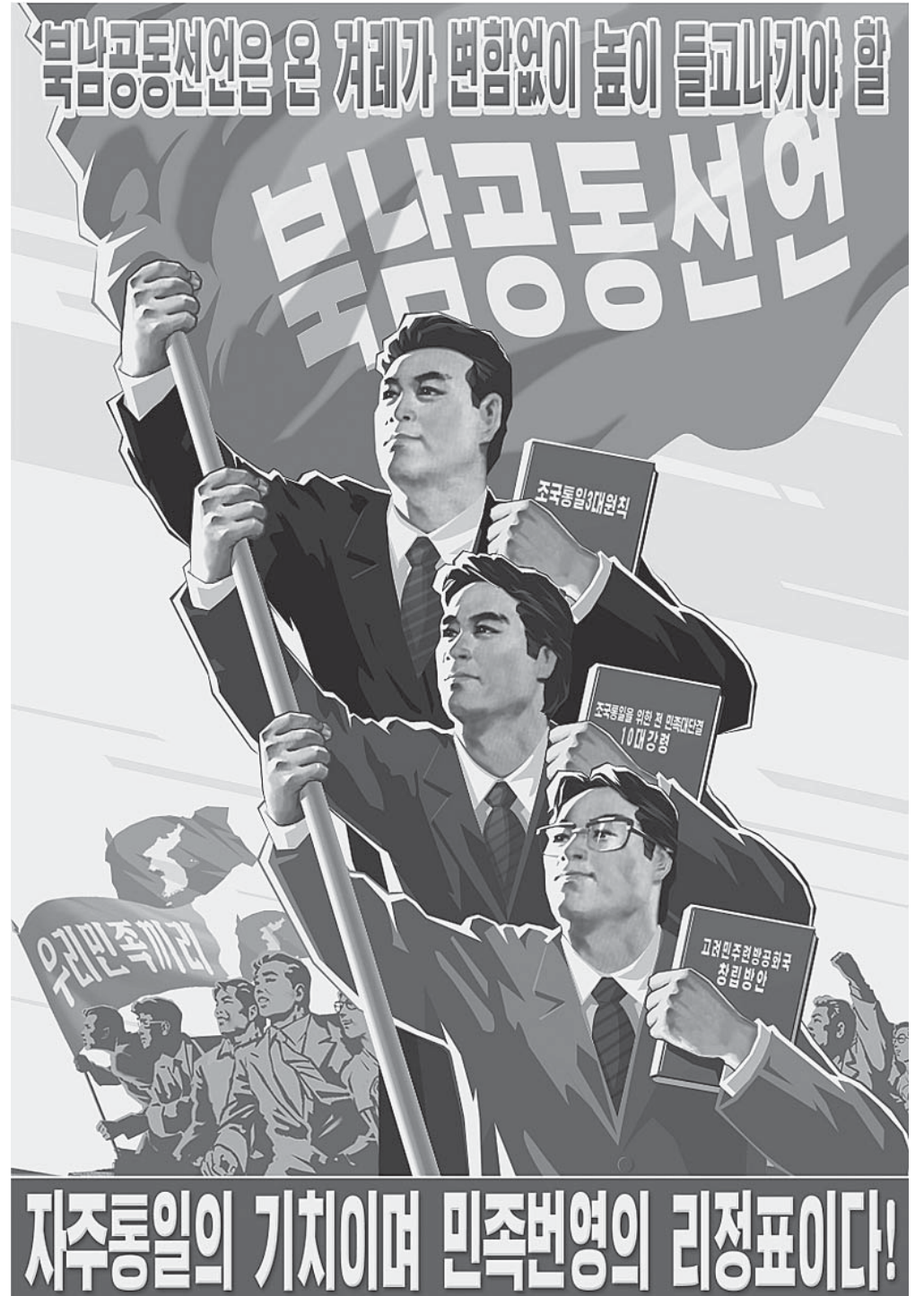
돌이켜보라 6.15의 흐름속에
우리 서로 얼싸안았던 그대
마음과 마음이 대화를 나누고
정과 정이 협력의 꽃으로 피어
통일의 날 바라보며 살지 않았더라

그 나날에 벅차던 그 환희

오늘도 삶의 숨결로 후덥거니
남녘의 동포들이여
혈육의 정으로 마주앉자
민족공동의 리익 첫차리에 놓고
마주앉아 마음 나누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누면
협상의 물고기가 뜨고
협력의 물줄기가 흐르고...
그러면 오고가는 믿음속에
그때처럼 6.15시대 그때처럼
통일의 길은 활짝 열리리라

아, 새해 2011년
그 달과 달들에 높이 울릴
대화과 협력의 발걸음소리에
이 마음은 벌써
남달려서 그대들을 얼싸 안는다
통일과 가슴젖어 이야기한다



조건없이 만나야 한다

본사기자 전덕성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이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중대제안을 천명한 때로 부터 10여일이 지나갔다. 그동안 공화국은 연합성명에 이어 당국사회의 무조건적이며 조속한 회담을 공식적인한테 이어 폐쇄된 판문점 북남적십자자동차를 다시 열며 개성공업지구의 북남경제협력협약의 무효 종결을 해제하는 실천적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 는 온 겨레의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만일 공화국이 제안한대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된다면 북남사이의 조성된 대결 국면도 해소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리라하는것은 두말 할것도 없다.

그러나 유감스러운것은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대화제에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는것이다. 남측은 도리어 그 무슨 《천안》호사건과 연평도사건, 《해문제》에 대한 《북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떠들고있다.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하자는것인지 아니면 시간이나 질질 끌면서 현 북남 대결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것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원래 회담에 앞서 조건부 를 내거는것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라고 할수 없다. 공화국이 대화를 제의한것은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해서이다. 오늘의 북남관계는 위기를 넘어 파국상태에 처하여 있고 극도에 이른 불신과 대결로 인해 다시 군사적충돌이 벌어지고 전쟁으로 화할지 알수 없는 상태이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다 못해 포란이 오가는 험악한 사태라면 북남사이의 조성된 대결 국면도 해소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리라하는것은 두말 할것도 없다. 하기에 공화국은 북남쌍

북남관계개선은 6.15시대의 절박한 요구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불라는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는 길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해나가는데 있다. 북남관계개선은 6.15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현실을 다시 있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조국통일문제를 일관히 해결하자면 북남관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민족적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가 있으며 통일의 넓은 길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려는 우리 겨레의 장기전에 걸치는 노력은 새 세기에 들어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탄생시켰다. 반세기이상이나 굳게 닫겨

져있던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고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광이 실현되는 등 6.15이전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이것은 해외의 온 민족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북남관계와 통일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자재의 힘으로 해결해나간데 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이야말로 우리 겨레가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서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 할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6.15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지금 엄청난 난관에 직면해있다. 남조선에서 보수당국이 출현한 때로부터 북남사이에서 진행되어오던 대화와 협력사업들은 전면 차단되고 동족사이에서 불신과 대결의 폭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공화국의 온갖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있으며 오히려 쌍방사이에서 포란이 오가는 험악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혹한 현실은 공동선언

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우리 민족끼리리남을 든든히 틀어쥐고나갈 때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그러면 문제들도 순조롭게 풀릴수 있으며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힘있고 번영하는 민족으로 자랑떨치게 될것이다. 나라의 분열이 장장 60여년의 년륜을 새기고있는 지금 동족대결을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다. 북과 남은 하루빨리 대화의 자리에 마주앉아 관계개선을 함께 모색 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민족과 력사앞에서 회피하지 못할 책무이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당국이 시대적으로 위급하고 위험한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남공동선언리행의 길에 적극 나설 때이다. 현시기 북남관계가 개선되느냐 마느냐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에하여 달려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서로 신뢰하고 화해와 협력, 단합을 도모해나감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안아오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전덕성

애국애족적이며 현실적인 제안

현시기 북남사이의 첨예한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북과 남이 대화와 협상을 하는 데이다. 대결의 방법으로는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할수 없고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대결은 결코 북과 남의 어느 일방에게도 리로울것이 없다. 하기에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은 지난 1월초에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최악의 상태에 이른 북남관계를 풀기 위해 당국자들, 여당들, 진보외는 보수이든 관계없이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조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하며 민족의 뉴대를 다시 열고 평화와 통일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현실적인 애국애족의 제안이다. 남조선의 야당을 비롯한

각계단체 인사들은 공화국의 연합성명내용을 《전제 조건없는 북의 대화제》로 환영하면서 《대화제가 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정부가 진정한 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할 때이다.》라고 하면서 당국이 북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있다. 남조선인론들도 북의 대화제에 조선반도가 다시한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있다고 평하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 6.15의 흐름을 이어나가 민족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과 번영을 이룩해야 할 뜻깊은 년대이다. 북과 남이 손을 잡고 마음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가장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으로 자랑떨치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심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바로보고 하루빨리 공화국의 대화제에 호응해나와야 한다. 본사기자 윤현주

남조선각계가 연합성명을 지지

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당사자는 남과 북이라고 하면서 금강산관광개, 경제교류 확대, 북남정상회담추진 등 전쟁방지와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을 남조선당국은 적극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도 13일 논평을 발표하여 《진정성》을 운운하며 그 무슨 《대화》이 라는것을 설정한 통일부의

반동일책동을 신랄히 폭로 단죄하면서 현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체없이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북남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남조선의 야당들에서도 높아가고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논평과 담화 등을 발표하여 공화국의 북남당사자간 회담제의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공화국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북이 무조건 남북대화를 하자고 했으며 당 정부여당에서도 무조건 남북대화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북의 대화요

을 발표하여 공화국의 연합성명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한 조치이며 가장 공명정대한 제안이라고 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것은 망상이며 민족을 배반하는 반역행위라고 지적하였다. 성명에서 단체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서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대화와 협상제에 적극 호응해나설것을 주장하였다. 재조선청년청년련합회도 각 성명들을 발표하여 조성된 사태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공화국의 제의에 호응하지 못할 리유와 조건이 있을수 없다고 하였다. 남조선의 집권세력들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민족의 운명을 구하기 위한 북남대화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남조선인권위원회는 그 무슨 《북인권특별위원회》설치를 토의결정하고 《국회》에서 《북인권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부산을 피우고있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좋은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할 이때에 남조선에서 상대방을 헐뜯는 발언들이 튀어나오고 대결소동이 벌어지고있는것은 공화국의 적극적인 대화제외와 성의있는 조치들에 대한 거역으로서 온 겨레의 위기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인권위원회가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사회주의 제도와 입심단결된 굳건한 정치체제를 허물어보려는 범죄적인 체제대결소동

이다.

그 누구의 의지도 없는 《인권문제》를 부각시키고 여론화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누구나 인정하는바이지만 공화국에서는 인권이 최대로 존중되고있고 정권이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인권》이 어쩔수 없이 아무리 떠들어야 하늘에 대고 침을 뱉는 격이다.

오히려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가뜰이나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부정적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화국은 이미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대해 제기하였다.

비방중상과 자극적인 행동은 쌍방사이 불신을 증대시키고 대결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요인이다.

상대방을 악의로 대하고 불신하면서 도대체 대화에서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비방중상이 란무하고 자극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대화와 협상을 제대로 할수 없고 실사마주않는다고 해도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다.

지난 시기 북과 남은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들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도모하여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특히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북과 남은 서로의 비방중상을 중단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계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현 당국이 출현한 이후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극적인 대결정책을 계속 시험하면서 도대체 대화에서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현실은 북남사이에서 비방중상과 자극적인 행동이 얼마나 나쁜 후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북남사이의 화해에 저축되는 비열한 《인권》소동을 견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서명수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들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극히 정당한것으로서 온 겨레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야당은 물론 각계단체 인사들은 연합성명대결정태를 계속 지속시킨다면 그로 하여 우리 민족 대화와 협력이 없이 북남대결정태를 계속 지속시킨다면 그로 하여 우리 민족에게 차레질것이란 무력충돌과 전쟁의 재난밖에 없고, 지난 3년간의 북남관계는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만일 이 땅에서 전쟁의 불길 이 다시 치솟는다면 그것은 돌이킬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이 세기를 이어가며 아직까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세계대전에서 동족끼리 서로 싸운다는것은 그야말로 회세의 비극이며 민족의 수

고 한다.

과거를 불문하고 북남사이 조건없는 대화와 협상을 하는것은 현시기 악화된 북남간의 문제들을 풀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서 중요한 요구이다.

대화와 협력이 없이 북남대결정태를 계속 지속시킨다면 그로 하여 우리 민족에게 차레질것이란 무력충돌과 전쟁의 재난밖에 없고, 지난 3년간의 북남관계는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만일 이 땅에서 전쟁의 불길 이 다시 치솟는다면 그것은 돌이킬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이 세기를 이어가며 아직까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세계대전에서 동족끼리 서로 싸운다는것은 그야말로 회세의 비극이며 민족의 수

고 한다.

과거를 불문하고 북남사이 조건없는 대화와 협상을 하는것은 현시기 악화된 북남간의 문제들을 풀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서 중요한 요구이다.

대화와 협력이 없이 북남대결정태를 계속 지속시킨다면 그로 하여 우리 민족에게 차레질것이란 무력충돌과 전쟁의 재난밖에 없고, 지난 3년간의 북남관계는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만일 이 땅에서 전쟁의 불길 이 다시 치솟는다면 그것은 돌이킬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이 세기를 이어가며 아직까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세계대전에서 동족끼리 서로 싸운다는것은 그야말로 회세의 비극이며 민족의 수

고 한다.

과거를 불문하고 북남사이 조건없는 대화와 협상을 하는것은 현시기 악화된 북남간의 문제들을 풀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서 중요한 요구이다.

대화와 협력이 없이 북남대결정태를 계속 지속시킨다면 그로 하여 우리 민족에게 차레질것이란 무력충돌과 전쟁의 재난밖에 없고, 지난 3년간의 북남관계는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만일 이 땅에서 전쟁의 불길 이 다시 치솟는다면 그것은 돌이킬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이 세기를 이어가며 아직까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세계대전에서 동족끼리 서로 싸운다는것은 그야말로 회세의 비극이며 민족의 수

이것이 어쩔수 저것이 어쩔수 하는 식으로 서로의 잘못을 들추어내기를 하는것은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바라는 시대의 지향과 민족의 요구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민족의 중대사를 위해서 는 어찌보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보다 래일이 더욱 중요하다.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운명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과거를 불문에 불리고 공화국과 허심하게 대화를 나누고 통일조국 건설을 함께 구상해야 할것이다.

민족중시의 립장, 평화통일의 립장에서 서서 대담하고 야망있는 자세로 민족의 운명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선다면 북남사이의 오해와 불신도 풀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도들도 논의 해결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본사기자 류철진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엔과 같은 력사적인 성명과 공동선언들이 탄생되었고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뜨거운 눈물속에 서로 부둥켜안으면서 통일조국의 미래를 심장과 폐부로 절감할수 있게 되었다.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이 하루빨리 대화의 물고를 터뜨리고 6.15시대와 같은 평화롭고 격동적인 나날들이 지속되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불신과 대결의 과거에 있던 문제들을 들추어가며

엔과 같은 력사적인 성명과 공동선언들이 탄생되었고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뜨거운 눈물속에 서로 부둥켜안으면서 통일조국의 미래를 심장과 폐부로 절감할수 있게 되었다.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이 하루빨리 대화의 물고를 터뜨리고 6.15시대와 같은 평화롭고 격동적인 나날들이 지속되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불신과 대결의 과거에 있던 문제들을 들추어가며

엔과 같은 력사적인 성명과 공동선언들이 탄생되었고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뜨거운 눈물속에 서로 부둥켜안으면서 통일조국의 미래를 심장과 폐부로 절감할수 있게 되었다.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이 하루빨리 대화의 물고를 터뜨리고 6.15시대와 같은 평화롭고 격동적인 나날들이 지속되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불신과 대결의 과거에 있던 문제들을 들추어가며

엔과 같은 력사적인 성명과 공동선언들이 탄생되었고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뜨거운 눈물속에 서로 부둥켜안으면서 통일조국의 미래를 심장과 폐부로 절감할수 있게 되었다.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이 하루빨리 대화의 물고를 터뜨리고 6.15시대와 같은 평화롭고 격동적인 나날들이 지속되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불신과 대결의 과거에 있던 문제들을 들추어가며



평화수호,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지체없이 해소 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남조선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서한 발송

오늘 조선반도는 전쟁이나 평화나 하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

온 세계가 평화와 안정을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유독 조선반도에서만 반복과 질시, 대결과 충돌의 악순환속에서 군사적긴장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북남관계는 번갈아갈 최악의 사태에 처해있다.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이런 사태들이 그가 동족이라면 북에 있던 남에 있던, 정계에서 일

하든 군부에서 북부하든 누구나 그 책임을 느낄줄 알아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를 보위하며 민족을 지키는것이 총잡은 군대의 본분이고 사명이다.

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은 20일 남조선국방부 장관에게 조선반도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내왔다.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침에한 대결국면을 해소할데 대한 우리의 중대제안은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과거에 구속되지 않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내대기를 마련하는데서 총잡은 군대도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응당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

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우리측은 남측이 북남당국간 회담의제로 상정시키려는 내용들이 북남군당국과 관계되는 군사적성격의 문제므로 그것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협안문제들을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거기에서 해결할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있다.

서한에는 회담의제를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로 하며 회담시기를 2월 상순의 합의되는 날자로, 회담장소는 쌍방이 합의하는 편리한 곳으로,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쌍방에비회담날자를 1월말경으로 정하자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남측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개선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려는 우리 군대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나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로 하며 회담시기를 2월 상순의 합의되는 날자로, 회담장소는 쌍방이 합의하는 편리한 곳으로,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쌍방에비회담날자를 1월말경으로 정하자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남측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개선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려는 우리 군대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나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결과 속이 다른 행동

최근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들은 해내의 온 겨레는 물론 세계 많은 나라 인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찬사를 받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북남관계악화를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이와는 달리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상서롭지 못한 행동들도 계속 나타나고있다.

미국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겉으로는 북남대화를 지지하는듯이 떠들고있지만 속으로는 만 공중기를 하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들을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순양함들인 《방크힐》호, 《그리틀리》호, 《스투데일》호 등을 남조선의 부산항과 진해항에 입항시켰었다.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의 합선도 아닌 항공모함단이나 한곳 체육행사나 하기 위해 남조선에 기여들었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다. 더우기 미핵항공모함 《칼빈슨》호로 말하면 지난 시기 미국과 남조선의 북침합동전쟁연습에도 여러차례 참가한 전적이 있다.

이것은 미국이 이번이 항공모함진단을 또다시 남조선에 파견한것이 우리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강화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기 위한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얼마전 한 외신이 《칼빈슨》호가 약 3주간에 걸쳐 남조선해군 및 일본해상 《자위대》와 공동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한 사실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금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수 없다.

군사적긴장과 대결이 지속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참에한 환경속에서 북남사이 대화와 협력, 교류가 제대로 진행될수 없다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더우기 오늘의 엄혹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북과 남사이 대화문제가 일정에 올라있고 온 세계가 그것을 관심하는 지금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전쟁소동이 어떤 후과를 초래할것인가는 더 말할 여지도 없다.

미국은 이것을 뻔히 알면서

도 극히 위험한 무력증강행동에 광분함으로써 북남관계를 긴장시키고 대화분위기를 파괴하는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를 또다시 드러내놓고있다.

둘이켜보면 조선반도에서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미국은 남조선간첩 미군부력을 증강하고 호전적인 전쟁불장난소동을 벌리는것 등으로 긴장격화를 몰아오곤 하였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강경고압정책으로 공화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사태를 긴장격화로 몰아가려는것이 미호전세력들의 본심이다.

현실은 미국이 말로는 《북남대화의 선행》에 대하여 떠들지만 실은 군사적대결소동으로 대화의 분위기를 해치고 핵문제와 평화적해결을 위한 길에도 장애를 조성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평화를 위한 대화와 전쟁을 추구하는 군사적대결소동은 결코 랑립될수 없다.

미국이 진심으로 북남대화를 바라한다면 그에 걸림돌이 되는 무모한 군사적소동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호

조선반도의 평화와 악화된 북남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북과 남이 마주앉아 허심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국제적분위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때에 남조선당국이 동족과 마주앉은 대신 외세를 끌어들이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는것은 그들이 끝끝내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는것으로부터는 달리 설명할수 없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그렇다.

남조선인민들이 폭로한바에 의하면 남조선 국방부 장관과 미

국방장관의 합의에 따라 올해에 남조선미국련합해상훈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진행되며 그 지역은 지난해의 포괄범위를 넘어 동서해뿐 아니라 남해에서도 실시될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지난 한해동안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키 리종보》, 《울지 못하며 가디언》과 같은 각종 명색의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매 일같이 벌려놓았다. 실전의 분위기가 속속이 강행한 화약발은 군사연습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는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전

의는 안중에 없이 계속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의 군사적대결소동이 외세의 부추김에 의해되고있는것은 두 문제이다.

지금 미국은 《홍수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에 포로되어있는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을 계속 동족대결에로 부추기고있다. 그 리면에는 조선반도정세를 계속 불안정하게 하여 저들의 남조선에 대한 감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일본을 포함한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패권을 잡아보려는 흉심이 깃들여있다.

미국방장관이 13일 일본방위상을 만나 《조선반도안정에는 남조선, 미국, 일본방위협력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것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떠들고 미합참의장이 지난해말 남조선과 일본을 연이어 행각하면서 《남조선과 일본이 과거문제를 초월해 군사분야협력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운운한것은 이를 명백히 실증해준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 기회에 조선반도에 대한 제침의 기회만 노리고있다. 일본이 남조선과 《안전보장분야에서도 동맹관계》를 맺는것을 올해 일본의 교의 최대현안중 하나로 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대화와 전쟁연습소동은 결코 랑립될수 없다.

내외호전세력들이 군사적대결과 압박으로 그 무엇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그야말로 오산이다.

남조선당국은 무모한 대결놀음을 그만두고 온 겨레의 요구대로 대화마당에 나와야 하며 미일당국은 저들의 더러운 리기심을 채우기 위해 남조선당국을 전쟁에로 추동하는 부질없는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김응철

미국방장관이 13일 일본방위상을 만나 《조선반도안정에는 남조선, 미국, 일본방위협력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것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떠들고 미합참의장이 지난해말 남조선과 일본을 연이어 행각하면서 《남조선과 일본이 과거문제를 초월해 군사분야협력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운운한것은 이를 명백히 실증해준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 기회에 조선반도에 대한 제침의 기회만 노리고있다. 일본이 남조선과 《안전보장분야에서도 동맹관계》를 맺는것을 올해 일본의 교의 최대현안중 하나로 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대화와 전쟁연습소동은 결코 랑립될수 없다.

내외호전세력들이 군사적대결과 압박으로 그 무엇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그야말로 오산이다.

남조선당국은 무모한 대결놀음을 그만두고 온 겨레의 요구대로 대화마당에 나와야 하며 미일당국은 저들의 더러운 리기심을 채우기 위해 남조선당국을 전쟁에로 추동하는 부질없는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김응철

정세를 긴장시키는 위험한 협력놀음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인민적악정의 철회를 요구

남조선의 민주로총, 《인권운동사랑방》, 통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17일 서울에서 경찰의 무차별적폭압에 의해 살해된 통산철거민회생자들을 위한 추모주간선포식을 가지었다.

선포식에서 발언자들은 통산참사가 빛어진지 2년이 되어오지만 아직도 학살탄핵에 대한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싸운 철거민들이 감옥에 갇

혀 고통을 당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각계가 단결하여 통산참사문제를 해결하고 당국의 재개발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민주로총,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비롯한 106개 정당, 단체들과 개별적인 인사들이 망라된 통산참사범극추모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본사기자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본토에 있는 《F-16C》 전투기 12대와 350여명의 미군전투부력을 그 무슨 《순환배치》의 미명하에 남조선의 군산미공군기지에 새로 전개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번 무력증강소동에 대해 미국은 《방문행사》라느니, 《지역봉사활동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